

# 알코올중독자 남편을 둔 여성배우자의 자아주체성 회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go-subjectivity Recovery Experience of the  
Wives of Alcoholics

최미란, 조희선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비자가족학과

Mi-Ran Choi(achieve1220@naver.com), Hee-Sun Cho(hscho2@skku.edu)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배우자들이 남편인 알코올중독자와의 공동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자아주체성을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 5인과 1:1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Giorgi[1]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분석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공동의존(자아주체성 상실)’, ‘피폐한 삶’, ‘자아의 버팀목’, ‘자아에 대한 자각’, ‘자아주체성 회복’을 포함하는 총5개의 주제를 추출했다. 둘째, 연구자들은 모든 주제들을 통합하여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의 자아에 대한 자각을 통한 자아주체성 회복’이라는 본질적 주제를 뽑아냈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들에 대한 다양한 심리치료 시스템의 적용과 상담, 가족 및 신앙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자아버팀목에 관한 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 중심어 : |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 | 자아주체성 회복 | 현상학적 연구 |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how wives of alcoholics could escape from the co-dependency relationship and recover their ego-subjectivity. This study conducted 1:1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wives of alcoholics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 objective. Data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by the phenomenological method proposed by Giorgi[1]. First, researchers extracted five subjects, including ‘Co-dependency (Loss of ego-identity)’, ‘Impoverished life’, ‘Ego-prop’, ‘Ego-awareness’, and ‘Ego-subjectivity recovery’ in the course of the data analysis. Secondly, researchers identified “Ego-subjectivity recovery through Ego-awareness of a wife of an alcoholic”, an essential theme, by integrating all subjects. Researche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proposed practical alternatives for various psychological treatment system and ego-prop like as counselling, family member of alcoholic wives and power of faith.

■ keyword : | The Wives of Alcoholics | Ego-subjectivity Recovery | Phenomenological Study |

## I. 서론

한국사회에서 술에 따른 폐해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본인의 신체적 건강 문제를 지목할 수 있다[2]. 보건복지부의 알코올 사용 장애 평생 유병률 조사(2016)에 의하면 국내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평생 유병률은 남자가 18.1%, 여자가 6.4%, 전체 12.2%로 남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2.8배 높았다.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의 일년 유병률은 전체 3.5%로 2016년 일 년간 알코올 사용 장애<sup>1)</sup> 환자 수는 139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남자 5.0%, 여자 2.1%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2.4배 높았다. 다른 국가들과의 유병률을 비교해 볼 때 일본 1.6%, 호주 2.9%, 프랑스 0.5%, 벨기에 1.7%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4].

알코올중독은 단순히 신체적 문제를 넘어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며[5], 이로 인해 타인과 마찰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어려움에까지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중독자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6]. 특히, 알코올중독자 부인은 심한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 완벽주의, 충동성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데 알코올중독자 여성 배우자들의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들은 알코올중독자에게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하는 악순환적인 결과가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면서 가족병으로 점점 더 심화되어가며 이러한 현상은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7].

알코올중독자의 여성배우자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주체성 상실 문제이다.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으로부터 폭력, 폭언을 비롯한 부정적인 피해를 받다 보니, 현실에 대한 불안정한 심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방어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8]. 이에 따라 알코올중독자의 여성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적응하

고자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은 ‘공동의존’의 형태로 드러난다[9]. 공동의존 현상으로 여성배우자들은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남편에게 의존함으로써 남편의 알코올 중독 문제에 같이 빠져있게 된다[10]. 결국, 알코올 중독 문제는 중독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문제이다. 이렇듯 알코올중독자의 여성배우자들이 겪는 자아상실의 문제는 공동의존(co-dependency)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11].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알코올중독자의 여성배우자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의 자녀양육 경험[12-14], 둘째, 알코올중독자부부 관계연구[15-17], 셋째,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18-20]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여성배우자의 자녀양육과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여성 배우자로서 삶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배우자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여성배우자가 겪고 있는 공동의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여성배우자의 공동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1][21][22]. 이 연구들은 공동의존을 심화시키는 요인들, 가족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사회적 지지체계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아무리 공동의존 심화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고 의사소통체계와 지지체계를 구축해 준다고 해도 자기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배우자의 자기 주체성 확립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들이 남편인 알코올중독자와의 공동의존 관계에서 벗어나 자아주체성을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1)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s)는 과도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응적인장애를 의미하고[3], 이는 과거 DSM-IV에서의 알코올남용과 알코올의존을 하나의 진단기준으로 통합한 것이다.

## II. 이론 검토

### 1. 여성배우자의 공동의존

공동의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1979년 알코올중독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공동의존자(co-dependents), 또는 공동 알코올중독자(co-alcoholics)라는 용어로 설명되면서 시작되었다[23].

공동의존이란 일종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질환(disease of lost selfhood)이다[24]. 즉,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삶의 책임과 행복을 타인에게 돌림으로써 여러 형태의 고통이나 역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참자기(true self)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자신의 생각, 느낌, 믿음, 결정, 직관뿐 아니라 생리적 신체 기능까지 포함하여 자신 내부와의 접촉을 잃은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주체가 자신 내부와의 접촉을 잃어버리고 과도하게 외부에 의존하는 현상을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필요나 내적인 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동의존적인 자기(co-dependent self)로 살게 되면 자기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고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다양한 질환이 생기게 된다[24].

Cermark[25]는 공동의존증을 인격장애에 기초해서 설명하였다. 공동의존은 중독자의 욕구에 부합해서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의 주체성과 경계의 장애라고 정의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진단기준을 제시했다.

- (1) 음주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을 유지함
- (2)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대한 과중한 책임을 떠맡음
- (3) 친밀과 이별에 대한 불안
- (4) 인격장애자, 약물중독자, 다른 공동의존자 혹은 충동조절장애 개인들과의 관계에서 애착
- (5) 다음 중 3개 이상의 부정의 방어기체에 과하게 의존, 감정표출의 장애, 우울, 불면증, 혼돈, 불안, 약

물남용, 육체적, 성적학대를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 스트레스와 관련된 의학적 질환, 최소한 2년 동안 외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중독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

공동의존의 진단기준을 고려할 때, 알코올중독자 배우자는 친밀과 이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알코올중독자인 배우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26]. 이러한 공동의존 현상은 결국에는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알코올중독자와는 다른 클라이언트로 보아 개입이 필요한 또 다른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2. 자아주체성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들이 공동의존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과정은 자아주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자아(ego)는 ‘나’라는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 합리적이며 현실지향적인 성격의 체계이자 성격의 경영자이다[27]. 한편 자아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말하며 주체성이란 인간이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나타내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8]. 이러한 자아가 제대로 기능할 때 우리는 현실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들은 공동의존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자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아주체성은 이러한 자아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자아주체성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학계에서는 자아정체성과 자아주체성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29].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두 용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자아정체성은 Erikson[30]이 자아심리이론을 정립하면서 사용한 용어로 ego-identity로 표현했는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다. 이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는 내적 동일성과 관련이 있다[30]. 한국에서 번역어로 사용한 정체성(正體性) 역시 변하지 않

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의미한다. 결국 자아주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또 거대한 사회 질서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한 느낌을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0]. 그 핵심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동질성의 지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알코올중독자 여성 배우자들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넘어 독립적인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까지 보고자 한다. 그래서 정체성과는 구별되는 주체성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주체성(主體性)이란 자주적 능동성 내지는 자주적 실천과 관련이 있다[31]. 사실 철학적 관점에서는 주체성을 ‘Subjectivity’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는 주체가 다른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 행위 한다는 것을 말한다[32]. 즉 ‘주체성’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행위 하는 성질을 말하는 용어이다. 그렇다고 정체성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정체성은 주체성 회복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체성 개념을 주체성 형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주체성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즉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체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자아정체성 개념과 자아주체성 개념을 종합해 볼 때 이 연구에서의 자아주체성(ego-subjectivity) 회복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고 독립적이며 능동적 실천을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III. 연구방법

#### 1. Giorgi 현상학적 접근의 의의

Husserl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Giorgi[33]의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이 경험한 것들의 본질 탐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Giorgi 현상학의 특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구술을 판단중지와 자유변경을 거쳐 기술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공통적 특성을 분리하여

기술하는 것이다[34]. 연구자들은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가 중독자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아주체성을 회복한 경험과 그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 현상학적 접근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개별적 상황에서 도출된 중심의미를 기술하고 하위주체로 구성된 후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하여 공통주체로 산출했다.

#### 2. 연구수행을 위한 준비

본 연구자는 상담센터에서 알코올중독, 인터넷중독, 외도 및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인한 문제로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와 여성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에 대한 다양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구수행을 위해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수하였으며, 질적연구와 관련된 전문연구소에서 1년간 심층면담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질적 연구방법(현상학적 연구, 사례연구, 근거이론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현장상담 경험과 학습경험은 이번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인 알코올중독자를 남편으로 둔 여성배우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과 자아주체성 회복경험에 관한 연구내용 전개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 3.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자들은 세평적 사례 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방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했다. 이 방법은 특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연구주체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35]. 연구자는 이를 위해 참여자 선정 전 다음과 같은 기준을 구성했다. 첫째, 결혼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경과한 여성배우자, 둘째, 배우자가 알코올중독자로 진단 받은 여성 배우자, 셋째, 여성배우자의 남편이 현재 단주에 성공하여 2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 선정 기준을 단주 2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알코올중독자의 회복 선행연구들이 단주 후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회복이 가능한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연구들이 있음에 근거하였다[24]. 넷째, 가족친목모임(Al-Anon)<sup>2)</sup>에 참여한 여성 배우자로 자신의 가족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여성 배우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참여자표집을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근무하는 가족친목모임대표를 통해 이와 같은 선정기준에 맞는 참여자 5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참여자들의 기본정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분	성별	연령	학력	결혼기간	단주기간	직업	가족관계
참여자 1	여	63	고졸	40년	13년	요양사/베이비시터	배우자/2남
참여자 2	여	61	고졸	40년	14년	임대업	배우자/1남1녀
참여자 3	여	64	고졸	38년	24년	부동산중개업	배우자/1남1녀
참여자 4	여	60	고졸	40년	3년	조리사	배우자/1남1녀
참여자 5	여	68	대졸	44년	10년	임대업	배우자/2남1녀

#### 4. 자료수집

자료는 1:1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했다. 연구자는 안정된 분위기에서 최대한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심층면담은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커피숍에서 진행되었다. 면담 수행이전에 원활한 면담 수행을 위해 ‘공동의존(자아주체성 상실)에 빠져있을 때의 삶은 어떠했는가?’, ‘공동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인가?’, ‘무엇이 자아주체성을 회복하게 만들었나?’, ‘자아주체성을 회복한 이후의 삶은 어떠한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질문지를 작성하여 활용했다. 면담 질문지는 중독재활 현장에 활동하는 상담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심층면담은 포화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의 새로운 범주나 단서 등이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수행했다. 참여자 1인당 2회의 인터뷰를 수행했고 1회당 평균 90분이 소요되었다.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수집했다. 구술 자료는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했고 추후 이를 전사(轉寫)하여

원자료(Raw data)로 구성했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Giorgi[37]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인식’이다. 연구자들은 전체 진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 전체 기술 내용을 읽으면서 맥락을 파악했다. 둘째, ‘의미단위’를 파악했다. 연구자들은 의미단위를 구별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현상, 즉 ‘알코올중독 여성배우자의 자아주체성 회복 경험’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를 다시 상세하게 읽었다. 셋째, 학술적 언어로의 변형이다.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일상 언어로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진술 내용을 반성(reflection)과 상상적 변형(imaginative variation)과 과정을 거쳐 학문적 언어로 변형시켰다. 넷째, 일반적인 구조진술로 통합했다. 변형된 의미단위들 속에 포함된 통찰내용들을 ‘일반적 기술’로 통합하여 연구 참여자의 체험에 관한 구조를 제시했다.

#### 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및 엄격성 확보

##### 6.1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과정에서 윤리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가치가 있는 연구이어야 함을 자각하고 염두에 두었다. 둘째, 사례자들에게 인터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자유로운 연구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설명문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자가 구두로 다시 한번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셋째, 사례자들이 종용이나 회유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고지된 내용에 대한 동의서에 이름과 싸인을 받았다. 넷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비밀보장을 위하여 본 연구 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다섯째,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했고 연구가 종료한 후 모든 자료를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

##### 6.2 엄격성 확보를 위한 접근

질적연구의 엄격성(rigor)이란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2) 가족친목모임(AI-Anon)은 주식중개자인 'bill'과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외과의사인 'Bob'에 의해 1935년 미국에서 단주친목모임이 최초로 생겼으며, 그 모임으로 다수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회복시키게 되자 친족들도 적용하였다[36].

연구의 결과와 해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38].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했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prolonged engagement)이다. 연구자들은 면담 전부터 사례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연구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둘째는 다원화(triangulation)이다. 다원화는 이론다원화, 연구방법다원화, 복수의 연구자, 자료출처의 다원화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론다원화 전략을 활용했다. 이를 위해 공동의존 및 주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고자 했다. 연구자들은 심층면담이외에도 문헌기록 등을 수집하여 자료의 풍부함과 깊이를 담보하고자 했다. 셋째, 연구자들은 합의적 분석모델을 채택하여 공동의 작업을 했지만 자료분석과 기술 시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것들은 연구자가 아니라 참여자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들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연구자들은 이외에도 질적연구를 수행해 온 가족학 분야 연구자 1인과 중독 관련 분야 연구자 1인으로 동료연구 지지집단을 구성했다. 동료지지집단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고 자의적 해석과 독단을 방지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 IV. 연구결과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먼저 원자료를 분석하여 149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했다. 의미단위 중 연구중심 현상의 맥락에 포함된다는 연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삭제하고 서로 중복되는 것들을 통합하여 24개를 중심의미로 구성했다. 이후 중심의미들을 공속적 차원에서 결집하여 12개의 하위주제를 발굴했고 이를 다시 현상학적인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비교를 하여 5개의 주제를 구성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상황적 구조기술과 일반적 구조기술로 나누어 정리했다. 상황적 구조기술에서는 참여자들의 독특한 개별 경험이 하위주제를 통해 드러나도록 기술했으며, 일반적 구조기술에서는 주제를 중

심으로 참여자들이 체험에 부여한 의미의 공통점들을 일반적인 진술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분석결과

주제	하위주제	중심 의미
공동의존 (자아주체성 상실)	남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주를 위해 노력했지만 술을 사주고 남편의 술에 끌려다니</li> <li>• 모질지 못해 남편의 술을 끊게 하지 못해서 술중독에 끌려다니</li> </ul>
	참자기 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에게 솔직한 의사를 표현을 못함</li> <li>• 말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못함</li> </ul>
	불안정한 애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이 싫어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연민으로 남편 옆에 있음</li> <li>• 술먹는 남편이었으나 남편에게 내 삶을 의존하고 살아옴</li> </ul>
피폐한 삶	심리적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삶의 우울증과 무기력을 느낌</li> <li>• 삶이 허무해서 며칠동안 두꺼운 커튼을 치고 방안에만 있음</li> </ul>
	자살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삶의 피폐로 자살충동을 느낌</li> <li>• 지옥속에 사는 것 같아 죽고 싶은 마음</li> </ul>
자아의 비탄목	상담을 통한 자아지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선생님의 상담을 통해 자아를 지탱하며 삶을 이어감</li> <li>• 자조모임을 통해 자아의 힘을 얻음</li> </ul>
	가족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 대신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시아 버지를 생각하며 살아감</li> <li>• 자녀를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정엄니를 생각하며 살아감</li> </ul>
	신앙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정을 지켜주시신 신께 감사함</li> <li>• 남편이 회복되어 가정을 유지시켜준 신께 감사함</li> </ul>
자아에 대한 자각	자아(ego)의 문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함</li> <li>• 거부장적 문화와 교육방식에 얽매인 자신을 보기 시작함</li> </ul>
	고통 후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통이 자아의 인식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음</li> <li>• 고통으로 인해 미처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깨달음</li> </ul>
자아주체성 회복	자기에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나인 것이 좋음</li> <li>•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함</li> </ul>
	자아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의 술중독과는 별개로 경제활동을 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함</li> <li>• 남편과 상관없이 한 개인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독립된 자아를 회복함</li> </ul>

## 1. 상황적 구조진술(하위 주제)

### 1.1 공동의존: 자아주체성 상실

다른 사람(남편)의 행동이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삶의 책임과 행복을 타인에게 돌림으로서 여러 형태의 고통이나 역기능을 갖게 되는 공동의존 현상에 처해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자아주체성 상실의 모습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으로 ‘남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 ‘참자기를 무시’, ‘불안정한 애착’이라는 세 가지 하위주제로 구성하였다.

#### ① 남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

모든 참여자들은 남편의 단주를 위해 술을 사주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남편이 술을 안사주면 참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안 물건을 부수는 행동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술을 사줄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알코올중독 상황 하에서 배우자들은 강압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남편이 술을 안 사준다고 나한테 마구 행패를 부렸어요. 나는 사주기 싫은데 나를 때리다가 집안의 가재도구를 마구 부셔요...그러나 사주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술을 사올 수 밖에 없었어요(참여자 1).”

“내가 독한 년이었으면 남편의 술을 더 빨리 끊었을 텐데 ...내가 모질지 못해서 그냥...남편한테 끌려다녔어요(참여자 4).”

#### ② 참자기 무시

연구참여자들(1,2,3,4)들은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지만 솔직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다. 참여자 1과 3은 남편이 술을 먹고 오면 잠을 안 재우고 밤새도록 말을 시키는데 남편한테 맞을까봐 무서워 그만하라는 얘기를 못하고 밤을 꼬박 새운 날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 2는 남편이 딸을 때릴 때에 남편을 말려야 하지만 그 상황을 방관하고 남편을 피해 숨기에 급급했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술을 먹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남편과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행동을 제지시켜야 하는 참자아의 요구를 회피하며 거짓자아로 방관하는 이러한 상황은 전형적인 ‘공동의존’의 모습을 보

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23]. 이는 자아주체성 상실의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이다.

“딸이 남편에게 엄청 심하게 반항했죠. 그래서 남편한테 많이 맞았는데 내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무섭기도 하고 ...딸을 보호했어야 하는데...그냥 숨어 있었어요(참여자 2).”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그런데 그만하라고 얘기를 못하죠. 남편한테 맞을 까봐.....안당해본 사람은 정말 몰라요. 그렇게 십여 년을 살았어요(참여자 3).”

#### ③ 불안정한 애착

알코올중독자인 남편과 친밀과 이별을 둘러싼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참여자 2와 3은 남편의 술중독이 너무 싫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으나 남편의 어린 시절에 친모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계모 밑에서 성장한 이유로 남편을 불쌍히 여겨 남편 옆에 남아 있었다. 이는 공동의존의 증상 중 친밀과 이별을 둘러싼 불안증상과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25]. 참여자 5는 자신이 서점을 운영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술만 먹으면 외박하는 남편으로 인해 가정의 대소사를 직접 실행하면서도 남편에게 자신의 삶을 의존하며 살아왔다.

“우리 남편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이 세상에 엄마가 없는 사람이예요. 남편은 엄마가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남편이 귀한 아들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지켜볼 것 같아서 우리 남편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참여자 2).”

“제가 늘 남편을 의존하고 살아왔더라고요. 알코올의존자가 술에 의존하고 살아가듯이 말예요. 저는 어떻게든 이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애써왔더라고요(참여자 5).”

### 1.2 피폐한 삶

피폐한 삶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으로 ‘심리적 위축’, ‘자살충동’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하위주제를 구성하였다.

### ① 심리적 위축

연구참여자들(2,3,5)은 남편의 술중독으로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상태를 경험했다. 특히, 참여자2는 방에서 두꺼운 커튼을 치고 하루종일 안 나가고 누워있기만 하였고, 참여자3은 남편의 폭력으로 많이 맞다보니 무기력해져서 일상의 삶에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참여자5는 남편이 술을 먹고 외박하는 일이 많아져 참여자가 가정 내에 모든 일을 감당하다가 삶에 지쳐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남편이 백수인데다가 술을 먹고 그렇게 횡포를 부리니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집을 나가야 하나...뱃속의 애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정말 살기가 싫어졌고 모든 삶이 우울하기만 해서 방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며칠을 누워있기만 했죠(참여자 2).”

“남편이 술을 먹으면 욕을 험하게 하고 자녀들 앞에서 무슨 년 무슨 년하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한 마디 하면 손이 올라오니 내가 아무 말도 안하게 되었지. 그래서 점점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사는 게 무기력해져서 내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참여자 3).”

### ② 자살충동

연구참여자들(3,4)은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술을 먹고 단순하게 술주정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통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의 술로 인해 부부관계가 다 파괴되고 남편의 직업도 상실함에 따라 가정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한편으로 자녀의 양육도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삶이 피폐해지자 죽고 싶은 마음을 토로했다.

“지옥 속에서 사는 거지 땅을 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지옥에서 사는 거지... 정말 죽고 싶었는데 아이들도 있고 용기가 안 나서...정말 힘들었지요(참여자 3).”

“남편이 술만 먹으면 개망나니가 되어서 어디로든 도망가서 나 혼자 살던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려고 했었는데...사람 목숨이 모질어서...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나 모르겠어요(참여자 4).”

### 1.3 자아의 버팀목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코올중독자의 배우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자아상실을 경험한다. 이때 그들의 자아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다양한 사회적 지지와 영적인 힘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이는 ‘상담을 통한 자아지탱’, ‘가족생각’, ‘신앙의 힘’이라는 세 가지 하위주제로 구성할 수 있다.

#### ① 상담을 통한 자아지탱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삶의 위기상황이었을 때에 상담사 및 정신과 의사 등의 상담을 통해 자아의 힘을 얻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다.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서 그 정신과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살아갈 힘을 얻고, 그것을 계기로 상담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지요(참여자 3).”

“알코올중독자 가족모임에 가니 그 곳에서 하는 얘기가 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보니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다보니까 친정을 가는 것 같고 그 모임에 갔다 오면 살아가는데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참여자 4).”

#### ② 가족생각

참여자 2는 결혼 초부터 백수인 남편을 대신해 재정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 참여자 4는 남편의 술로 인해 이혼하려는 동생을 붙잡아 주는 친정 언니를 생각하며 삶을 이어 나갔다.

“우리 시아버지가 저에게 신뢰를 주셨어요. 항상 남들한테 ...우리 며느리 안쓰럽다. 우리 며느리를 보살펴줘야 한다고 그러셨지요(참여자 2).”

“남편이 불편하다고 자식을 두고 이혼하고 나 혼자만 잘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남편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언니가 저를 붙잡아 줬지요(참여자 4).”

### ③ 신앙의 힘

연구참여자들(1,2)은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으로 인해 삶이 말할 수 없이 고달프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단주하고 자조모임과 기타 상담 등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현재까지 자녀들에게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나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신(神)께 감사하며 신앙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남편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8년이나 별거하고 남편처럼 살아왔지만 남편이 회복되어 가정이 다시 합쳤고 아직도 힘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신(神)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참여자 1).”

“우리 남편이 술을 하도 먹어서 귀가 어두워져서 장애인 이 되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 일 년 계약적으로 취직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정이 깨지지 않고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위대한 신(神)께 감사해요. 아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감사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참여자 2).”

## 1.4 자아에 대한 자각

자아에 대한 자각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으로 ‘자아(ego)의 문제 인식’, ‘고통 후 성장’이라는 두 가지 하위 주제로 구성하였다.

### ① 자아(ego)의 문제 인식

연구참여자들(1,3,5)은 남편의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입원시키면서부터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거나 자조모임에서 소개받은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의 문제를 떠나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강의를 두 달 동안 들었는데 그때 느끼게 무엇이나면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 느낌에...논과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흠어져 있는 논발을 가로질러서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말이 있었구나를 느끼면서 내가 남편의 문제를 떠나 나의 내면이라는 것을 처음 발견하기 시작

했지요(참여자 3).”

“남편의 술중독을 고치려고 병원에도 입원시키고 가정 폭력으로 경찰도 부르고 많이 노력했는데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상담을 받다가 ○○연구소에서 심리학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남편에 의존하며 사는 나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지요. 그동안 가부장적 문화와 옛날 교육방식에 얽매인 나를 보면서 나의 내면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조금씩 나를 보는 연습을 시작했지요(참여자 5).”

### ② 고통 후 성장

참여자(1,3,5)들은 남편의 술중독이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극복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던 중에 심리치료와 상담공부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자아의 자각으로 인하여 자아를 찾는 통로로 고통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자아가 성장하였다.

“깨닫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되고 남편의 술 중독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어요. 편한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일어설 줄 몰라요. 고통이 불행도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참 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고통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참여자 1).”

“남편을 입원 시키고 난 후 세상을 보니 비 온 뒤에 날씨가 청량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상이 상쾌해요. 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보던 세상이 아니라 비 온 뒤에 보는 세상 보는 느낌으로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동안 남편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알았고 그 고통으로 인해 미처 나 자신을 인식하지 못함을 깨달았지요(참여자 3).”

## 1.5 자아주체성 회복

자아주체성 회복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으로 ‘자기에 발현’, ‘자아독립’이라는 두 가지 하위 주제로 구성하였다.

### ① 자기에 발현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 우울증, 무기력에 시달리자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우울증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하다가 자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아에 대한 자각은 자아주체성 회복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아를 찾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는 자아주체성에 대한 회복을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0]. 또한 남편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내가 나인 것이 좋다'라고 까지 인식하게 되었다.

“제가 개인 심리치료와 예술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그 중에서 음악치료를 통해 '내가 나인 게 참 좋다'라고 느꼈어요. 현실에서 남편으로 인한 온갖 걱정에서 모두 벗어나게 되었어요. 나는 걱정에 찌들은 내가 아니라 원래 나의 모습이 참 좋은 거예요(참여자 1).”

“남편의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한 병원에 정신과 의사선생님한테 개인 상담을 받고 병원에서 하는 상담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심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센터에 가서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억눌려 내가 하찮은 존재인지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속고 살았더라고요....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내가 나인 것이 얼마나 좋은 지를 깨달았어요(참여자 3).”

### ② 자아독립

참여자(1,3,5)들은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 자아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참여자1은 요양사와 베이비시터로 경제활동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살아갔다. 다른 참여자 5는 연구소에서 심리학을 몇 년 동안 공부함으로써 남편에 대한 심리적 의존에서 벗어났으며 자산을 운영하며 경제적 독립을 하여 남편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자아독립을 이루었다.

“남편이 알코올중독 병원에 입원을 여러 번 해도 계속 술을 먹어서 제가 심리치료를 받던 중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남편을 버렸어요. 아들도 군대가서 만날 수 없고 집안 혼례로 예식장에서 만나도 남편을 아는 척도 안했지요. 나는 남편과 상관없이 요양사(베이비 시터)로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변화되어서 별거한 지 8년 만에 다시 합치게 되었지요(참여자 1).”

“남편의 술중독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던 중에 본격적으로 연구소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였지요. 그 때 술먹는 남편에게 내 인생을 의존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상관없이 나는 친구들과 좋아하는 음악회도 가고 일주일에 기관 봉사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기 시작했지요. 조그만 부동산이지만 월세를 놓아서 다행히 경제의 어려움이 없어 스스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어요(참여자 5).”

## 2. 일반적 구조진술(주제)

Giorgi[1] 분석 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일반적 구조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변형된 의미단위 속에 포함된 통찰을 참여자의 체현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로 통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단위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본질적 주제'를 파악하여 '알코올중독자 남편을 둔 여성배우자의 자아주체성 회복'의 구조와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본질적 주제를 파악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의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의 자아주체성 형성에 대한 하위주제들을 '공동의존(자아주체성 상실)', '폐쇄한 삶', '자아의 버팀목', '자아에 대한 자각', '자아주체성 회복'으로 통합하였다.

통합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참여자들은 남편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여성배우자가 공동의존의 현상에 기인하여 남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며 참자기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며 살아갔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자들은 심리적 위축으로 우울증 및 무기력과 자살 충동을 느끼는 폐쇄한 삶을 살았다. 연구자들은 이를 '공동의존(자아주체성 상실)'과 '폐쇄한 삶'이라 명명했다.

그러나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삶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속에서도 상담을 통해 자아를 지탱하였으며 가족을 생각하고 신앙

의 힘을 바탕으로 상실된 자아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연구자들은 이를 ‘자아의 버팀목’이라고 명명했다.

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 자아(ego)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남편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고통이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어 자아를 자각하는 인식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이를 ‘자아에 대한 자각’이라고 명명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심리치료와 상담공부를 통해 자존감이 올라가 내가 나인 것이 좋으며 남편의 술중독으로 인한 공동의존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아주체성이 회복되어 남편과는 별도로 자아독립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연구자들은 이를 ‘자아주체성 회복’이라고 통합했다.

지금까지 서술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경험은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의 자아에 대한 자각을 통한 자아주체성 회복 경험’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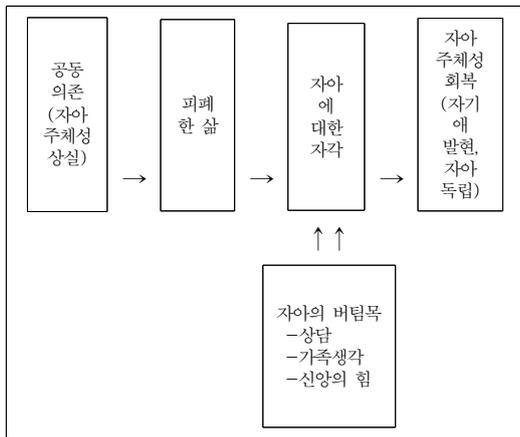


그림 1.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의 자아의 자각을 통한 자아주체성 회복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배우자들이 남편인 알코올중

독자와의 공동의존 관계에서 벗어나 자아주체성을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알코올중독자인 남편과 공동의존 관계에 빠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아주체성을 상실했다. 자아주체성을 상실한 참여자들은 남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참자기를 무시했으며, 불안정한 애착과 심리적 위축, 자살충동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 가족생각 및 신앙의 힘을 바탕으로 상실된 자아를 지탱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이후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여성배우자들은 자아(ego)의 문제를 인식하고 남편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고통을 자아의 성장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자아에 대해 자각하는 경험을 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배우자들은 자아주체성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의를 토대로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의 자아주체성 회복 과정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관점에 관한 논의이다. 첫째, 자아주체성에 관한 논의이다.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의 기존 연구에서는 회복하는 과정자체에 의미를 두었다[18]. 이는 기존 연구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의 회복 과정에 초점을 맞춰 회복 단계와 영향 요인에 집중했기 때문에 중독 문제로 발생하는 배우자의 공동의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구결과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의 자아주체성 회복이 공동의존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 여성 배우자의 공동의존 문제를 바라볼 때는 단순히 알코올중독자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회복 기제인 자아주체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자아의 자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관한 논의이다. 연구결과 자아의 자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자아의 버팀목’ 같은 외부의 조건이 작용할 때 여성배우자들은 자아를 자각할 수 있었다. 이에 여성배우자의 자아에 접근할 때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내지는 조건들의 작용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실천적 개입을 위한 논의이다. 첫째, 알코올중

독자 여성배우자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심리치료 시스템에 관한 함의이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공동의존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었다.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상담 및 치료가 필수적이다. 다만 여기서 집중할 것은 단순히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남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과 참가기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유의한 '미술치료', '음악치료', '동작치료'와 같은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불안정한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정신분석에 기인한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한 심리치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의 상실된 자아의 버팀목에 관한 함의이다. 연구결과 여성배우자의 회복과정을 볼 때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들이 남편의 중독으로부터 자아주체성을 회복하는 현상은 단순히 위기상황에서 바로 자아주체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중간단계에 상실된 자아와 삶을 스스로 지탱해주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 요인들은 여성배우자의 가족, 상담 및 신앙의 힘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실천가들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족, 상담사 및 자조모임,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모든 참여자는 60세 이상이다. 이렇게 연령이 편중될 경우 연구결과를 다양한 연령층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높은 연령대만을 참여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체성 회복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주체성 회복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삶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연령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경험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A. Giorgi,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Vol.43, No.1, pp.3-12, 2012.
- [2] 강경화, "성인대상 알코올중독 예방 조기대입의 단기효과: 예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11, pp.550-561, 2018.
- [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2013.
- [4]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2016.
- [5] 우재희,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대처 방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0, pp.180-188, 2014.
- [6] A. Copello, J. Orford, R. Valleman, L. Templeton, and M. Krishnan, "Methods for reducing alcohol and drug related family in non-specialist setting," *JMH*, Vol.9, No.3, pp.329-343, 2000.
- [7] 강은실,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경험에 관한 일 연구," *간호학회지*, 제7호, pp.39-63, 1995.
- [8] 이은주, 엄예선, 김미혜, 윤명숙, "알콜중독자 배우자의 회복 프로그램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제26권, pp.165-199, 1994.
- [9] 김미혜, *알콜중독자 부인의 공동의존 심화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0] 강연우, *알코올의존자 가족의 공동의존 12단계 촉진치료에 대한 효과성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1] 김희성,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공동의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12] 강향숙, "알코올중독자 여성배우자의 자녀양육 경험,"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5호, pp.277-310, 2017.
- [13] 이선화,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개발*,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4] C. S. Widom, T. Ireland, and P. J. Glynn, "Alcohol abuse in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followed-up: are they at increased risk?,"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56, No.2, pp.207-217, 1995.
- [15] 윤명숙,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의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6호, pp.119-155, 2003.
- [16] 구승례, "회복중인 알코올 의존 부부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분노에 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8권, 제4호, pp.1693-1710, 2007.
- [17] M. B. Powers, E. Vedel, and P. M. Emmelkamp, "Behavioral couples therapy(BCT) for alcohol and drug use disorders,"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8, No.6, pp.952-962, 2008.
- [18] 최송식, 이슬지,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의 배우자로 사는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3호, pp.431-462, 2012.
- [19] 박미경,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삶의 경험*, 가야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0] C. A. Allan and D. J. Cooke, "Stressful life events and alcohol misuse in wome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46, No.2, pp.147-152, 1985.
- [21] 최송식, *알콜중독가족의 공동의존증에 대한 사정과정 개입전략*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22] D. Lyon and J. Greenberg, "Evidence of codependency in women with an alcoholic parent: Helping out Mr. Wro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3, p.435, 1991.
- [23] Melody Beattie, *Codependent No More*, Hazelden, p.34, 1992.
- [24] C. L. Whitfield, "Co-dependence : Our most common addiction-Some physical, mental, emotional and spritual perspectives,"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Vol.6, pp.19-35, 1989.
- [25] T. L. Cermark, *Diagnosing and Treating Co-Dependence*, Johnson Institute Books, 1986.
- [26] 이금희,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이 알코올의존자 부인의 공동의존 분노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27] 권중돈,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p.319, 2014.
- [2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
- [29] 김효숙,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주체성 형성에 관한 실험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30] E. H. Erikson, "Iden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 Vol.1, No.1, p.23, 1959.
- [31] 이찬훈, "현대사회 구조와 주체성," *대동철학*, 제5호, pp.253-278, 1999.
- [32] 임석진 등저, *철학사전*, 증원문화, 2009.
- [33] A. Giorgi,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oysands Oak, CA: Sage, 2004.
- [34]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출판부, 2007.
- [35] L. M. Miller and C. L. Carpenter, "Altruistic leadership strategies in coaching: A case study of Jim Tressel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A journal for Physical and Sport Educators*, Vol.22, No.4, pp.9-12, 2009.
- [36] 서규동, *알코올중독자 가족 친목모임이 알코올중독자 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37] A. Giorgi,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Vol.28, No.2, pp.235-260, 1997.
- [38] Y. S. Lincoln and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Sage, 1985.

